

한국전쟁시 미군의 전술심리전 효과분석

(1950년 6월~12월)

崔 勇 城

(육군3사관학교 교수)

- 머 리 말
- 미군의 전술심리전 실태
- 미군의 전술심리전 효과분석
- 맺 음 말

1. 머 리 말

현대전쟁은 국가의 전 역량을 동원하는 총력전이다. 총력전 중 심리전은 특정 국가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태도 및 행동을 자국측에 유리하도록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리적인 활동이다.¹⁾ 특히 군사심리전은 국가가 군사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주체측에

1) 조영갑, 「한국심리전략론」(서울: 도서출판 팔복원, 1998), p. 29.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모든 활동이다.²⁾

심리전은 전쟁수행과 마찬가지로 무력사용의 여부, 활동영역, 수단과 목적 등에 따라 전략, 작전, 전술의 세 수준으로 수행한다. 전략심리전은 정치지도자들이 자국과 우방국 국민과 군인의 의지를 일관되게 유지시키고 적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한다.

전략심리전의 역할에 대하여 영국 수상 처칠(Churchill)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아군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기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전쟁의 의미와 목적, 근본적 이유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전략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작전·전술심리전이 달성할 수 없는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전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략심리전은 전쟁의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실시된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 대전시 연합군은 덩케르크, 진주만 등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미디어를 통해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의 실상과 사치스러운 거택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의 반전여론을 차단하고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공보심리전을 수행하였다.

작전심리전은 특정한 전술적인 승리보다는 전역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군사적 심리활동이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시 아군은 북한 및 북한군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전단을 살포하였다. 또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이라크군의 동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선에 투항전단을 살포하여 전의를 분쇄하였고 이라크는 공보장관 알 사하프(Sahaf)를 통하여 미·영 연합군이 민간인들을 공격하여 발생한 피해 상황을 알렸고 군의 사기와 전의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바그다드 거리에서 자신들이 건재함을 보였다.

전술심리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수행한다. 먼저, 메시

2) 육군본부, 「심리전 야전교범 33-5」, 1998, p. 8.

지의 구체적인 표적은 어떤 대상인가? 둘째, 대상이 어떤 환경아래 있는가? 셋째,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넷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다섯째, 우리의 자극으로 나타나는 적의 반응은 무엇인가? 여섯째, 언제 심리전을 수행할 것인가?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은 이라크의 특정한 민병대에게 전단을 이용하여 인간의 기본욕구에 호소하는 선무심리전을 수행하였다. 전술심리전에서 중요한 점은 적 병사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어느 국가의 정치적 이론이 옳고 그르며 또는 어느 국가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등에 관한 문제보다는 전투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물질적인 욕구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군은 그들의 환경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그들의 진정한 욕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대체로 적 지역에 전단을 살포하여 투항할 것과 투항자에게 양호한 대우를 약속하는 것으로 적에게 전의를 상실시키는 작전 심리전과 전단을 포병탄에 실어 최근 정보로 밝혀진 적이 투항하기를 원하는 장소에 정확히 살포한다든지, 적 부대 주위에서 확성기 방송으로 적에게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설득시키는 전술심리전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심리전부(PWB: Psychological War Branch)³⁾가 수행한 전단 선전, 확성기 방송, 라디오 방송의 전술심리전 실태와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3) 미 극동사령부 정보참모부 심리전부(PWB)는 심리전 정보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즉, 전단과 확성기 방송 메시지 준비, 지시, 생산, 살포작전과 보고 준비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군단급 제대에서는 작전처의 소령급 장교에 의해 운영되었고 그는 전단살포, 확성기 작전에 책임을 맡고 전단 및 지상 확성기 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적을 선정하고 작전을 계획할 수 있었다. 사단급 제대에서는 중위나 대위급 장교가 작전처에서 표적 선정과 상위 제대 심리전 촉진에 대한 임무를 수행했다.

2. 미군의 전술심리전 실태

(1) 전단 선전

1) 전단 제작 및 살포

한국전쟁에서 미군 심리전의 주요활동은 전단을 생산하는 것이다. 미 극동사령부 정보참모부 심리전부에서 생산한 전단은 약 105종이었다. 이것은 심리전부에서 위임받아 한국에서 생산한 전단도 포함된 것이다. 이 전단은 네 개의 주요 대상인 북한군, 적측 민간인, 국군, 아측 민간인을 목표로 제작되어 약 1억 6천만장이 1950년 7월부터 12월까지 살포한 전단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⁴⁾

전단은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전쟁초기 5개월 동안에 적 부대에 살포된 대부분의 전단은 적들이 투항하면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내용과 항복 전단지(surrender pass)였다. 12월에 살포된 전단은 새로운

<표 1> 한국전쟁에서 살포한 심리전단(1950. 7~12)

목 표	살 포		계
	심리전부	야전사령부	
적 부대	87,526,000	15,176,000	102,702,000
적 점령 지역	20,757,000		20,757,000
아군 또는 자유지역	42,449,000	1,472,000	43,921,000
계	150,732,000	16,648,000	167,380,000

자료출처 : Pettee, p.15.

4) George. S. Pettee, "US Psywar operations in the Korean war"(McMair base, washington: 1951. 1. 23), p. 16.

상황에 봉착한 적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었다. 이 전단은 특정한 적 부대 또는 적 주민에게 정확히 떨어뜨릴 목적은 없었으며 그 내용은 유엔 활동에 대한 정보 또는 인천상륙 등과 관련된 소식이었으며, 한국군과 민간인들에게 투항한 전단은 유엔의 지원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심리전부에서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28개종의 전단을 제작하였는데 그 중 5종은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었고, 이 중 2종은 최초 전단을 수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17종의 전단은 투항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으며, 6종의 전단은 다른 주제였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한 17종 전단 중의 4종은 공중폭격에 대한 경고 내용이었으며, 8종의 전단은 유엔과 관련된 것이며 5종은 다른 주제의 내용이었다. 또한, 국군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11종의 전단과 14종의 소식전단을 만들었다.⁵⁾

적 부대를 대상으로 제작한 첫번째 전단은 7월 17일에, 두번째 전단은 8월 2일에 생산되었다.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첫번째 전단은 8월 9일에 생산되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전단중 36종은 일반적인 정보를 내용으로 한 것이고, 25종은 적의 일부 부대가 투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암시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13종은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었다. 그 당시 생산된 전단은 일반적인 목표인 적 투항을 권유하고 폭격을 경고하기 위한 전단이었으며 특수한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전단은 없었다. 항복 전단지는 어떠한 시간, 장소, 부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10종의 전술전단이 생산되었다. 이 전단들은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게 한국 육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생산하였다. 전단 중에 일부는 심리전부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인쇄되었고 나머지 전단은 한국에서 인쇄되었다. 이 전단들은 모두 전투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알맞은 내용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생산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단들은 지금까지 심리전부에서 생산되었던 일반적인 전단과는 달리 대부분

5) Pettee, p. 17.

전술적으로 사용되었다.

전단을 전술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심리전부는 최초 2종의 전단(시리얼 번호 8003, 8004)을 제작하여 한 종류는 20만 매를 낙동강방어선에 있는 한국군부대에 살포하였고 다른 종류는 80만 매를 민간인들에게 같은 날짜에 살포하였다. 그 다음에 제작한 전단(시리얼 번호 8005)은 원산 근처에 있는 한국 해군의 특별한 요구로 심리전부에서 인쇄한 것이다. 시리얼 번호 8006번 전단은 심리전부가 승인하여 함흥에서 30만 매를 인쇄, 제작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12월에 중공군에게 살포할 2종의 전단 제작을 요구하였다. 이 전단 중의 하나(시리얼 번호 8007)는 부대에 편제된 항공기로 약 50만 매를 살포하였다. 다른 전단(시리얼 번호 8008)은 그 당시 정보 상황이 변화하여 살포하지 않았고 마지막 전단은 12월에 아직 한강을 건너지 못한 민간인들에게 살포하였다. 또 다른 전단의 경우 미 제24보병사단 정보처에서 특수한 용도로 만들어 연락기로 살포하였다. 이 전단을 살포할 때 제19 보병연대는 강 남쪽에 있는 신남포에 접근하였다. 나룻배와 모든 배는 강 북쪽에 있었다. 그리고 10월 20일 오후에 간단한 접전이 있던 후 신남포를 점령하였으나 강을 건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휘관들은 전단으로 강 대안에 있는 부대와 의사소통을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등사 인쇄물로 전단을 100매 정도 제작하여 도시에 떨어뜨렸다. 다음날 10월 21일 3척의 배가 건너와 접촉이 이루어졌고 미군은 강을 가로질러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 전단은 국지 전술적 상황에 알맞게 제작하여 살포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전술적 효과가 매우 컸다.⁶⁾

2) 전단 살포수단

전단 살포수단은 B-29 폭격기가 전체 전단 살포의 90%를 차지하였고, 10%는 보병부대에 편제된 연락기, 공군 T-6, 해군 F4U, C-47 확장기용 비

6) Pettee, p. 23.

행기, 포병탄으로 살포하였다.

B-29 폭격기는 일본 도쿄 근처 요고타 기지에 있었고, M-16A형 폭탄 또는 유사한 형태의 폭탄 32발을 적재할 수 있었다. 폭탄 1발과 전단 약 22,500여 매를 적재했을 때 무게는 약 175파운드(79kg)였다. 따라서 전체 32개 폭탄을 싣고 전단까지 싣어도 그 무게는 3톤에 불과하므로 비행기의 최대 적재용량에 미치지 못하였다. M-16A형 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1950년 괌에서 실험했을 때 2,500피트 상공에서 투하하여 800피트에서 개방될 때 1,500에어리어에 전단이 퍼졌다. 그 후 M-16A1형 폭탄이 1951년 11월에 개발되어 5×8인치 크기의 전단 22,500매 또는 4×5인치 크기의 전단 45,000매를 살포할 수 있었다.⁷⁾ 전단은 폭발하는 시점의 고도가 높고 바람이 불면 멀리 퍼지는데 가장 좋은 전단 살포방법은 지상에서 2,000피트 이상 고도에서 폭발시켜 정상적인 바람의 영향을 받아 20~25마일 지역에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비행기 조종사는 한국의 작전조건 하에서 목표지점의 풍향을 고려하여 지폭탄을 15,000~25,000피트에서 투하하여 지상 약 1,000피트 상공에서 폭발시켰다.

이 폭격기는 한국전쟁에서 1억 5,000만 매 이상의 전단을 대량 운반하였다. 그러나 이 살포방법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즉 이 비행기로 전단을 살포하는데 약 4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고도로 훈련된 승무원 10명 이상과 비행장마다 50~100명 이상의 지상 근무인원이 필요하였다. 이 비행기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심리전 지부를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경비보다 더 많았다.

전쟁 초기 B-29 폭격기로 전단을 살포한 횟수는 특정한 달 1주일에 4회였으며 12월부터는 기상이 좋은 날 매일 1회 투하하였다. 전단은 정보에 기초하여 인쇄한 후 비행기에 12~24시간 사이에 전달되고 비행기가 지폭탄을 싣고 목표지점 위를 날아가는 시간까지 12시간 이상 걸린다. 따라서 최근 정보를 받은 시간부터 지폭탄을 투하할 때까지 36시간 이상 소요된

7) K. K. Hansen, "Psywar in Korea", p. 198.

다. 따라서 이 방법은 광범위한 지역에 있는 적 부대에게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부대에 특별히 제작한 전단을 살포할 때 전단의 1/3 정도는 목표에 정확히 도착시킬 수 없어 비효과적이었다. 반면에 C-47 수송기는 전단뭉치에 도화선을 달아 전단을 다소 정확히 투하하였고 B-26 폭격기는 저공으로 신속하게 비행하여 지폭탄을 목표지점에 보다 정확히 살포할 수 있었다.⁸⁾

모든 전단의 약 10%는 전술적인 살포를 위하여 다른 비행기를 이용하여 살포하였다. 이 전단은 심리전부에서 만들어 제8군과 제10군단으로 운반되었고 그 다음 군단 및 사단 심리전부서로 분배되어 포병탄과 지역부대에 편제된 비행기로 살포하였다. 이 전단의 대부분은 군단 또는 사단에 편제된 연락 항공기로 정확하게 살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종사들이 단번에 목표지역 상공을 비행하여 전단을 뿌리고 두번째 비행할 때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정확하게 전단을 목표지점에 떨어뜨렸다. 전단 살포는 승무원이 직접 손으로 전단을 내던져 특정한 목표지점에 떨어뜨렸다. 군단지역에서는 공군의 T-6 비행기, 해군의 F4U 비행기, 화성기가 장착된 C-47 비행기를 사용하여 전단을 살포하였으며 이들 모든 비행기는 승무원이 직접 전단을 떨어뜨렸다. T-6 비행기는 전단 살포용으로 만든 우수한 비행기였으나 F4U 비행기는 고도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므로 기체 옆으로 전단이 흩어지는 위험성이 있어 전단 살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하였다.

제10군단 지역에서 10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술목표에 전단을 살포한 내용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포병탄을 이용한 전술적인 전단 살포는 낙동강방어선 전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05밀리 야포는 M-84탄의 산탄을 제거하여 4×5인치 전단 400매를 삽입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100피트에서 투하된 지폭탄은 50~

8) John Ponturo, 1952. 7~1953. 7까지 8군 예하 하위제대의 심리작전(ORO, Baltimore, 1953. 1. 25).

<표 2> 제10군단에서 살포한 전술적인 전단(1950. 10. 30~12. 11)

비행기	전단 수	전단비율	목표 수	목표 비율
MAG-33-12	307,000	34	55	44
사단 항공기	138,000	16	51	41
C-47	441,600	50	19	15

자료출처: Pettee, p. 21.

100야드까지 살포되었고 1,000피트 상공에서 투하된 지폭탄은 500야드~2마일까지 살포되었다. 포병탄을 이용한 전단 살포는 적을 투항시키는 유용한 수단이었다.⁹⁾ 그 증거로 아군이 8월 낙동강방어선 전투에서 투항하기를 원하는 적이 항복 전단지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지폭탄을 발사한 결과 항복 전단지를 가지고 포로가 된 적 병사가 많았다.

(2) 확성기 운용

확성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는 확성기를 운용할 적당한 인원과 조직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전술심리전 부대인 전술정보파견대(tactical information detachment)는 20명 규모로 미국 켄사스 릴리(Riley)항에 위치하고 있었다.¹⁰⁾ 이 파견대는 한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8월에 비상 발령되어 9월 9일 릴리항을 출발하였다. 파견대는 9월 15일 제1확성기 및 전단 중대¹¹⁾로 개칭되어 Osgood 중대장을 포함한 장교 4명과 병사 20명으로 구

9) Pettee, p. 21.

10) Jack K. Norris, “전술 심리전” 학생논문, 육군전쟁대학(1954. 3. 1), p. 15.

11) 이 중대는 10월 15일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11월 4일 장교 6명, 병사 99명, 인쇄기 3대, 스피커 12개, 차량 27대로 구성된 인가/편제 그리고 장비표가 마련되었다. 이 중대는 미 제8군 정보처의 작전통제와 배속부대들의 행정통제를 받았다. 이 중대의 일부장비는 11월 10일에 인천항에 도착했으나 아직도 많은 장비가 11월 30일까지 요코하마에 있었다.

성하여 9월 15일 시애틀에서 창설하였다.

지상 확성기 운용은 전방 사단에서 예하부대에 지프차 또는 트레일러가 달린 트럭과 통역장교를 보내면 예하부대 자체 심리전 담당 장교가 메시지를 준비하여 방송하였다. 지상 확성기는 9월과 10월 동안에 제1기병 사단에서 많이 사용하였고 가끔 제25사단 또는 인접부대가 대여하여 사용하였다. 지상 확성기 방송의 효과에 대하여 제8군 심리전 기록에 의하면 10월 24일을 기준으로 1~2일 동안 확성기 방송으로 약 75명의 포로를 획득하였고 11월 21일에는 확성기 상태가 불량하여 작전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12월 12일에는 발전기의 문제로 확성기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기간에 제1기병 사단에서 지상 확성기 사용 결과를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9월 22일에는 확성기로 적 9명을 항복시켰고 9월 23일에는 3명, 25일에는 6명, 10월 8일에는 100명, 그리고 10월 9일에서 11일 동안에는 300명을 항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확성기 1개당 평균 300명 정도를 항복시킨 것이다. 그러나 확성기는 적 화력에 매우 취약하였다. 지상 확성기는 제10군단과 해군에서도 사용하였다. 그것은 1톤 트레일러에 탑재하여 운용했는데 운전자, 라디오 작동자 그리고 타이피스트는 확성기와 같이 운용되었고 언어전문가도 참여하였다. 제10군단 지역에서 지상 확성기 운용은 12월 11일에 아군 부대들을 함흥으로 철수하라는 안내 지시, 통행금지 규정 등을 알리는데 대대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심리전 활동이라기보다 헌병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으나 전술적 효과는 매우 컸다.

공중 확성기 운용은 확성기가 달린 C-47 비행기 2대 중 1대가 10월 8일 제8군 지역에서, 나머지 1대는 11월 28일에 제10군단 지역에서 사용했으나 후에 제8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였다. 최초 C-47 비행기 운용은 중국군을 대

게다가 언어전문가 및 기타 심리전 전문가는 11월 중순까지 배치되지 않았다. 이 중대는 12월 초 약 55명으로 증가되어 전술적으로 확성기를 운용할 수 있었고 전술적인 전단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트레일러에 탑재된 확성기를 운용할 때는 항상 장비 작동 기술요원이 필요하였다.

상으로 약 5주 동안(10월 8일~약 11월 14일)사용하였다. C-47 비행기 승무원들은 확성기 운용능력은 우수하였으나 심리전 수행능력은 부족하였다. 공중 확성기 방송을 위하여 먼저 실시해야 하는 작업은 적에게 항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을 테이프에 기록하는 것인데 그 임무를 심리전부의 “작전연구소(operation research office)” 참모들이 하였고 그 내용을 한국에 있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검토하였다.

공중 확성기 방송을 운용한 사례는 10월에 C-47 확성기 탑재 비행기가 F-51 전투기의 엄호하에 병력을 싣고 평양에서 20마일 떨어진 안주로 향하고 있는 적 트럭 2대를 발견하였다. 아군은 확성기를 통해 방향을 돌려 남쪽으로 향하지 않을 시 F-51 전투기 폭격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적들은 즉시 남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그러던 중 은폐하였던 적 300명과 차량들이 합류되었다.¹²⁾ 이러한 방법으로 미군은 1950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북쪽으로 후퇴하는 다수의 북한군들을 포로로 획득하였다. 또한, 12월 27일부터 1951년 1월 2일 사이에 비행기는 한강을 도하하는 시민들을 통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상공에서 방송하였다.

그러나 제10군단 지역에서 활동한 C-47 확성기 비행기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 비행기가 서울에 있는 제5공군의 작전통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확성기의 지상작전은 다소 효과가 있었으나 공중작전은 전술적인 결점으로 효과가 없었다.

(3) 라디오 방송

심리전부는 북한군의 공격이 있을 후 곧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하였다. 이 유엔사 방송(VUNC)은 전쟁발발 4일 후인 1950년 6월 29일 도쿄 라디오 방송국에서 1,240, 1,270, 2,635, 3,985KHz의 주파수로 두 번 방송하였

12) Hansen, pp. 93-94.

다. 그것의 첫번째 프로그램은 30분 분량이었고, 7월 6일에는 1시간으로, 7월 19일에는 1시간 15분으로 증가하였으며 하루에 두 번 방송하였다. 이 방송은 1951년 1월까지 도쿄 라디오 방송국에서 실시하였다. 전쟁기간 동안 중계소는 도쿄에 있었으며, 오사카, 히로시마, 니카타, 마츄, 후쿠오카, 카지지메에 송신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중계소의 초기 임무는 한국에 지원군이 곧 증원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북한군에게 군대를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에게 유엔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유엔사 방송은 KBS 방송시설과 송신기로부터 전파를 받아 중계하였다. 이 방송의 초기 임무는 KBS체계와 시설들을 재건하는 것으로 부산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였을 때 심리전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파견하였다. 부산중계소(HLKB)는 유엔사 방송과 KBS로 보내는 미국 소리방송을 중계하였다. KBS는 10월 1일 반도호텔에 위치한 즉석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방송을 하루에 8시간씩 1개월 동안 중계방송하였다.

제1기병 사단이 10월 22일에 평양 라디오방송을 인수하였을 때 유엔사 방송은 평양 라디오 방송 시설상태를 점검했는데 장비는 최신형이었으나 발전기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연료가 없었다. 이 중계소는 11월 14일까지 유엔군의 협조 하에 후방에서 방송되었고 12월 2일 중국군이 서울을 장악할 때까지 하루에 7시간 방송하였다. 유엔군이 퇴각할 때 함흥 중계소는 북한에 공중파를 송신하는데 양호한 중계소였으나 도쿄나 KBS에 있는 유엔사 방송을 중계하는 수신기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12월 6일 스텝들이 함흥에 수신기를 설치하였을 때 중국군이 발전소를 폭파하여 해군 함선의 전원을 이용하였으나 민간인들은 가정에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50년 12월 24일에 중계소는 폐쇄되었으며 모든 스텝들은 함흥 항구에서 제9군단과 함께 철수하였다. 1월 4일 중공군이 남하함에 따라 서울 라디오 방송국은 점령당했다.

1951년 1월 하순경 제8군에 심리전처(PWD)¹³⁾가 설립되어 제1확성기 및

13) 1951년 1월 말, 미 8군은 Hansen 대령을 대표로 하는 심리전처를 설립했다. 이는 작전

전단중대가 그곳에 배속되었으며 또한 이 중대는 도쿄에 있는 심리전부로부터 전술심리전의 임무를 인수받았다. 7월경 심리전부는 55명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그 명칭을 심리전반(PWS)으로 개칭하였고 작전참모부에 예속되었다. 여기에는 번역가들도 일부 편성되었지만 군 관계자는 여전히 다른 조직에서 임시보충 되었고 그들의 재임기간도 보장되지 않았다. 심리전반 요원은 1941년 8월에 창설된 제3재생산 중대, 제4기동 공중과 방송중대에서 라디오 방송에 관하여 훈련받은 후 심리전반에 배속되어 한국에 파견되었다. 심리전반은 한국 내에서 전반적인 심리전 활동을 담당하였으며 제4기동 공중과 방송중대는 라디오 방송과 전단중대 내 공중과반과 협조하여 공중과 작전을 직접 관할하였다. 제1라디오 방송 1전단의 일부가 육군 제 8239부대로서 1951년 12월 한국에 급파되었다. 그들 임무 중 하나는 유엔군과 중국군 간 일진일퇴로 파괴된 남한 공중과 방송설비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전, 대구, 부산에 위치한 시설은 복구되고 확장되었으며 일제 신형 송신기를 설치하였다. 그 당시 서울지역은 붕괴되어 라디오 방송은 확성기로 대체되었다. 1953년 7월 1일 아군이 서울을 탈환했을 때, 유엔사 방송은 자체 송신기를 설치하였다. 정전 후 유엔사 방송의 임무는 한국 내 송신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었으며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1971년 6월 30일에 철수하였다.

3. 미군의 전술심리전 효과분석

먼저, 심리전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심리전 수행 결과를 측정하여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단 선전과 확성기 방송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 적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하면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차장의 지휘아래 있었고 제1 L&L중대가 심리전처에 배속되어, 전술심리전에 대한 통제력도 행사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수행한 전단 선전과 확성기 방송의 효과에 대한 증거는 전쟁포로들이 진술한 내용이고, 라디오 방송의 효과에 대한 증거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자 및 관련자, 한국의 여러 관련자들이 진술한 증언이다. 따라서 전쟁포로와 심리전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은 심리전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주요한 원천이다. 물론 전쟁포로들 전체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문을 받지 않았고 심리전 관련자들도 모두 진술하지는 않았다. 어찌 되었던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수행한 전단 선전과 지상 확성기 방송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부터는 전술적인 효과가 다소 나타났으나 라디오 방송은 효과가 없었다.

포로들에 대한 심문은 세 수준의 부서에서 실시하였다. 첫째, 군단 또는 사단에 배속 파견된 전방정보심리전(IPW)부서와 동일한 수준인 군정보국(MIS)¹⁴⁾ 둘째, 일선부대에 배속되어 있는 전방 정보 분석 및 해석 서비스(ATIS, MISDIV, G-2, GHQ)부서 셋째, 주요 전쟁포로 수용소 영내 위치한 전방 정보 분석 및 해석 서비스(ATIS)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심문부서의 주요 임무는 작전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적 전투서열 및 장비의 정보, 적의 조직과 훈련 정도에 관한 정보 등을 획득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심문의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심문요원들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고 각 심문부서들이 실시하는 심문방법이 서로 차이가 있었으며 짧은 시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심문부서들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해석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심문의 통일성 결핍 문제는 미군이 전쟁발발 2개월 후인 낙동강방선 전투에서 북한군의 8월 공세를 공세적 방어로 격멸하면서 포로를 획득하여 심문하는 과정에서 많이 개선되었다.

심리전지부와 전방정보부서에서 전쟁포로들을 1950년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11주 동안 심문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14) 미 육군에서는 1950년 정보처에 군정보국이라는 심리전 분과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50년 6월 22일 심리전분과는 심리전부로 개칭되었다.

<표 3> 전쟁포로들의 투항한 이유

이유 보고일	포로	전투조건	부대분리	물리적 조건	도망	심리전
9월 11일	1,013	559	46	128	196	84
9월 16일	93	40	13	7	16	17
9월 22일	155	35	10	3	23	84
9월 26일	127	31	4	10	27	55
10월 10일	567	138	19	20	86	304
10월 18일	192	68	9	5	31	79
10월 25일	41	15	1	·	2	23
10월 31일	351	84	1	4	30	232
11월 7일	50	30	1	·	12	7
11월 15일	76	29	·	2	35	10
11월 21일	63	24	·	·	30	9
계	2,728	1,053	104	179	488	904

전쟁포로가 된 동기에 대한 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11주 동안 전체 2,728명의 포로 중에 904(33.1%)명이 심리전에 영향을 받았고, 특히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진작전을 실시하여 국군 제3사단이 원산 남단 12km까지 진출(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하는 동안 567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는데 그 중에 304(53.6%)명이 심리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이 아군의 전단 및 방송 등을 보거나 듣고 자신의 의지를 움직여 포로가 된 경우가 33.1%로 의미 있는 심리전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아군이 적과 전선에서 상호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는 상황보다는 적이 지리 멀떨되어 후퇴하는 상황에서 심리전의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제9군단의 작전 보고서에 의하면 10월 25일에서 31일 동안 1,737명이 포로가 되었고 그들 중에 742명(42.7%)이 전단을 보았으며, 117명(6.7%)이 확장기의 방송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일에서 7일 동안 포로들을 관찰한 작전 보고서에 의하면 적 1,287명이 주둔한 곳에 확장기 방

송을 하였는데 그들 중에 334명(25.9%)이 전단을 보았으며, 반면에 55명(4.28%)이 확성기 방송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9군단에서 수행한 심리전은 확성기 방송보다는 전단 선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라디오 방송의 전술적 효과는 첫째, 누가 라디오 방송을 얼마나 들었는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둘째,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중계소 시설 상태를 알아봄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라디오 수신기의 숫자와 중계소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남한에는 라디오 수신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었다. 한국은행이 1949년 3월 Economic Review에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수신기 수는 1950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매우 정확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남한 정부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라디오 등록세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라디오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1949년 3월 남한의 수신세트의 수량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1949년 3월 남한의 라디오세트

지 역	수신기 수	인구당 비율(%)
서 울	70132	4.8
경 기 도	30,671	1.12
충청북도	2,818	0.26
충청남도	6,857	0.34
전라북도	8,279	0.44
전라남도	7,988	0.26
경상북도	7,664	0.24
경상남도	11,465	0.37
강 원 도	4,738	0.42
제 주 도	289	0.11
합 계	150,901	평균 - 0.74

자료출처 : Pettee, p. 50.

그 당시 라디오 방송국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초기 적 치하의 서울에는 3만여 대의 수신기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 중에 7,000~8,000여 대는 부산과 대구에 있는 방송국과 도쿄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1950년 12월 남한에는 약 7만대의 수신세트가 있었으며 이것은 1949년 3월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이처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작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수신기는 많지 않았다. 게다가 전력 공급마저 여의치 않아 여러 지방에서 장기간 수신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국가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라디오 방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한편,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수신기 수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1945년에 북한에는 약 8만대의 수신기가 있었는데 1946년 초기에 공산주의자들은 반공산주의 방송 청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기를 몰수하였다.¹⁵⁾ 심리전부는 1950년 10월에 라디오 평양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서울에서 평양으로 이동하였다. 그 당시 북한에는 수신기가 약 2만대 정도였다. 남한의 수신세트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1·4 후퇴로 말미암아 서울을 빼앗기자 라디오 청취를 거의 할 수 없었다.

미군의 심리전 효과를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심리전 매체를 통해 선전내용이 얼마나 많이 전달되었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전단은 최초 대량 살포할 수 있는 B-29 비행기로 떨어뜨렸으나 목표지점 도착의 부정확성 때문에 지역 부대에 편제된 비행기로 살포하였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여 비행기에 의한 전단 살포는 작전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포병탄에 의한 전단 살포 방법은 직접 원하는 적의 부대에 정확히 살포할 수 있어 전술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포병의 작전을 방해하고 포진지를 노출시키므로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 지상 확성기 운용은 효과가 있었으나 공중 확성기 운용은 효과가 없었다. 그 이유는 신속한 심리작전을 위한 육군과 공군

15) Pettee, p. 50.

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제대 심리전 담당장교의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라디오 방송은 전선의 빈번한 이동으로 중계소 시설이 파괴되어 장기간 방송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황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든 중계소에서 하루에 평균 4시간 정도 방송하였다. 그리고 편제화된 확성기 및 전단중대는 두 달 동안 활동하였으나 그 후에는 장비와 전문요원이 준비되지 않아 작전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심리전의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먼저 정치적,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쟁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리전의 비효과성은 전쟁에서 적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전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도 전투는 계속 진행되었고 전쟁유형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 하고 있는 전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심리전운용을 위한 준비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실행되었다. 심리전의 비효과는 심리전과 관련된 각 제대, 즉 육군에서 연대까지의 정보처 내 심리전 부서 간, 육군과 공군 간, 보병과 포병 간에 협조가 미흡했고 신속한 전술심리전을 위한 준비와 실시부대 간의 위치와 장비, 즉 심리전 재료를 제작할 수 있는 인쇄소시설과 그것을 살포하고 방송하는 부대가 근접해 있지 않았고 심리전 재료를 제작할 수 있는 각종 장비가 부족하였다. 또한, 심리전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부족한 반면에 그들에게 심리전에 대한 책임은 무거웠다.

4. 맺 음 말

한국전쟁에서 수행한 심리전 결과를 바탕으로 전술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전단을 살포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단과 군단에 편제된 연락기는 전단 살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전단을 제작할 수 없었다. T-6 비행기는 전단 살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군이 통제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즉시 필요할 때 지원받기 어려웠다. 또한, 어렵게 지원받은 비행기로 전술적인 전단을 살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목표설정, 전단제작 및 인쇄, 비행기에 적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적 전단 살포는 편제된 비행기를 운용하면서 그 근처에 인쇄시설을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포병탄에 의한 살포는 목표에 정확히 명중시키는데 편리한 방법이다. 그러나 포탄발사의 소음 없이 목표에 명중시킬 수는 없다. 또한 지폭탄의 발사는 아군이 의도한 심리전 효과를 방해할 수 있고 적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포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규격화된 전단을 장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수한 전단을 장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준비된 포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심리전 준비가 전투 포병들의 임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확성기 방송은 전장소음 때문에 항상 수행할 수 없다. 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에 사격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약정된 신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술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리전요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술심리전은 전투상황에 있는 요원만이 수행할 수 있다. 전술심리전 요원의 임무는 정보와 관찰을 통하여 특별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특정한 주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심리전요원이 훌륭한 전단 및 확성기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능력이 요구된다. 전술심리전과 적 언어에 대한 전문성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문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전문요원은 전술적인 주제가 준비되면 그것을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를 경험을 통하여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육군 또는 군단과 같은 대규모 부대 정면에 어떠한 전술심리전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조사 및 적이 개발한 심리전 도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 적의 평균 나이, 읽고 쓰는 능력, 적 부대의 교육수준 등과 같은 정보를 알

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적 지휘관의 성격 등의 기본적인 전기적 자료, 물가수준과 같은 항목, 할당 및 배급문제, 상품 가격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심리전 전문요원들은 적들의 문제에 대하여 적들에게 전문적으로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전쟁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전을 실시하였으나 잘 실행되지 않았다. 심리전요원들은 사회학, 문화인류학,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술심리전을 위한 주요한 사항은 심리전요원은 관계들과 긴밀한 연락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심리전요원은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란 경우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심리전에 기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심리전에 기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면, 심리전요원은 일선 중대장과 야전 장교들의 도움 없이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주요 작전 활동과정에 일어나는 심리전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전투상황에 매우 근접하여 있어 정확한 전술심리전 도구를 만드는 원재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술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야전장교들도 심리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구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작전수행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와 신속히 협조해야 하는지, 전단의 주요 형태가 무엇인지, 확성기로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황에 부합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3. 11. 1, 심사완료일 : 2003. 11. 20)

주제어 : 한국전쟁, 전술심리전, 전단, 확성기, 라디오

<ABSTRACT>

Effect Analysis of US Army Tactical Psychological War
during the Korean War(1950. 6~12)

Choi, Yong-Seong

This study is to assess the actual past operations and effectiveness of US military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Korean war, and the possible means of gaining increased effect. Leaflet production has amounted to about 160,000,000 copies; there have been more than 100 different kinds of leaflets. Approximately nine-tenths of all leaflets distributed have been delivered by strategic aircraft. About one-tenth of all leaflets have been delivered by artillery shell or by local aircraft, including organic liaison planes and Air Force planes under forward tactical control. About one in every ten of the different types of leaflets were made for special purposes requiring rapid action. They were made in Korea under the authority of the US Psychological Warfare Branch. Only two trailer-mounted loudspeakers and two air-borne local speakers have seen serviced in Korea in psywar operations. Projects using trailer and air-borne speakers have been hampered by lack of spare parts for the equipment and by technical imperfections.

Loudspeakers have demonstrated their value in specific instances. In the case of radios, programs of one to one and a half hour in length were produced in Japan and supplied to Korea daily. Several Japanese transmitters were used to broadcast programs in the Korean language for about 25 hours. In addition to the radio programs from Japan, Korean

stations have been operated at Seoul and Pyongyang, with up to nine hours per day of program broadcasted daily over the Seoul station. After the loss of Seoul and Pyongyang to the North Korean forces, a network of seven stations in South Korea took over the psywar program.

A detachment was sent from the ZI in September, 1950. It became the nucleus of a First Loudspeaker and Leaflet Company. This detachment was activated on the 4th of November. This company had difficulties in procuring its full complement of personnel and equipment that it was not yet operative at the end of the year.

Four factors were required for the effectiveness of tactical psywar. The first—the dissemination problem—as was indicated in discussing performance in the earlier part of this paper, are complex ones. The organic liaison planes of divisions and corps could do a fair leaflet-distribution job, but they could not produce the leaflets. T-6 planes were good for the work, but were controlled by the air force, and arrangements for their use were more elaborate than the arrangements for the use of liaison planes. Manual handling of leaflets dropped from the planes was far from being a satisfactory method of delivery. For all dissemination of tactical leaflets from planes, the relative location of targets, presses, and planes becomes a critical matter because of time required to cover the intervening distances. Obviously, it would be highly desirable to locate the presses adjacent to the airfields from which organic aircraft operate. If arrangements could then also be completed for the immediate assignment of corps planes for leaflet-drops, the time for delivery from press to plane might be reduced almost to nothing.

Dissemination by shell will often be a feasible method of hitting a target with precision. It will not, however, be able to hit the target without also producing the noise of shell fire, and the shelling, even though it is only with leaflet shell, may interfere with the psywar effect intended, either by driving the enemy into unintended movement, or into some other reaction.

For effective use, shells that are loaded with standard leaflets most usable for recurrent type of situations must be available. There must also be unloaded shells available, ready for loading with special leaflets.

Dissemination of psywar material by loudspeakers will not always be possible, because of battle noises. However, even in a big battle it may be feasible to use a loud-speaker at intervals, if control of other weapons permits cessation of fire. Some sort of battlefield signals may be necessary to arrange for a pause of pre-determined duration. A total cease-fire may, however, induce a similar cease-fire on the enemy side, if only to take account of the situation. Obviously, any signal that would bring a firing pause must be safeguarded against enemy imitation, by prearranged signal to cancel the cease-fire.

Second, the work of the psywar tactical expert and the enemy language expert seldom gets put together in such a manner as to permit anything approaching tactical-psywar. For any tactical psywar effort on a front as large as a corps or army, there will be a need for research. It may be quite possible to perform this on the theater level.

The research calls for a constant watch on developments in the enemy country. The enemy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must be summarized in a manner useful for psywar. It demands highly systematic organization of summary reference data. Psywar officers need to know this in detail. For instance, they need to know what the difference is between older and newer units of the enemy army. They need to know, or have available for ready reference, the elementary biographic data on leading enemy personalities, so they can refer to them for accurate details whenever the data are pertinent. They need to know the major issues that concern the home population, and such items as the price level, and the rationing and price regulation systems, so they can talk intelligently to the enemy about his problems.

Thirdly, it has been made plain throughout this discussion that a major

requirement for tactical psywar is liaison and co-ordination. Full-time psywar personnels must work with and through others at many points. Others include those whose contribution to psywar are part-time though regular, and still others whose contributions are not regular but only occasional. Tactical psywar is impossible without reliance upon company and field officers. It is only they who are close enough to battle, and uniformly distributed enough, to see the psywar situations that arise in the course of the main action.

Lastly,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actical-psywar, company and field officers in all units must have at least a rudimentary acquaintance with psywar. They must know what operations can be called for, and whom to call. They must be acquainted with the variety of possible means. They must know what main types of leaflets and loudspeaker talks are possible, how they can be fitted to the situation, and what details are needed to make them most effective. Also, they must know enough of psywar tactics to know a good situation when they see one, how to call on psywar and count upon it, and how to adjust their use of other weapons so that the psywar at the moment of delivery will fit into the entire action in an effective way.

Key Words : Korean War, Tactical Psychological War, Leaflet, Loudspeakers, Radio